

" 주님의은혜로"

저는 원래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. 사관학교에서 군인의 길을 시작하면서 같은 중대에서 만난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

군인의 본분은 "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"임을 알게 되었고, 동시에 "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."(요 15:13)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신앙생활이 깊어 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을 본분으로 삼는 군인이 된 것에 자량과 긍지를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결국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37년의 군 생활을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었습니다.

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.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모든 부대원들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을만큼 하나로 단결되어야 합니다. 그렇게 되기위한 핵심 요건을 병법에서는 "자기 부대원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대해 주는것"이라 합니다. 즉 사랑하라는 것입니다. 저는 "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"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이를 부대생활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점차 더 단결된 부대를 이루어 갈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부대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훈련을 쌓아갈수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깊게 그들을 사랑할수 있게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항상 사랑하는 자식같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군 생활은 즐거움이었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.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

전역후 지난 27년 동안은 주로 국내 군선교인 비전2020사역과 세계 군 선교사역인 AMCF사역에서 부족하지만 계속 봉사할 수있었습니다.

그 동안 국내 군 선교현장에서는 400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. 이것은 군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과 민간 군 선교사들, MCF회원들 그리고 군 선교를 돕는 4,000여 지역 교회들과 많은 군 선교기관들이 예수안에 하나되어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.

또한 그 기간에 세계 군 선교현장에서는 78개 국이었던 MCF설립국이 150개 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. 이것도 AMCF Presidential Bench members 와 AMCF사역을 돕는 주 지원기관들인 미국의 ACCTS, 영국의 MMI, 한국의 MSO 그리고 많은 Other Supporting Organizations들이 예수안에

하나되어 협력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였습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은" Not by might nor by power, but y my Spirit"(속 4:6)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가운데 진행되고있음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모든 영광을 드립니다.

이런 축복의 군 선교현장에서 "All One in Christ Jesus"되어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, 아래와 같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주님앞에 서는 날, 잘 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누려갈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.

" Behold, I am coming soon! My reward is with me,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." (계 22:12). 아멘!